

# “한글음성문자(The Korean Phonetic Alphabet)”의 재고찰

심 소 희

&lt;차 례&gt;

1. 들어가는 말
2. 언어 이론 및 정음관의 전승
  - 2.1 인도
  - 2.2 중국
  - 2.3 조선
3. 한글 음성문자체계의 원리와 응용
4. 맺는말

##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기원전 인도인들이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기술한 시기를 음성학 연구의 효시로 보고 있지만 서양에서 음성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의 일이다. 17·18세기에 비교언어학 또는 역사언어학 등에서 古音을 재구하면서 음성적 규칙을 많이 다루기는 하였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과학주의 학풍과 음성학 연구를 위한 과학적 기구가 발달하였고, 1888년 국제 음성학 협회(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가 성립되면서 세계의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음성문자(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가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음성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양에서는 19세기 이후에야 음성학이 발달하게 되었지만 동양에서는 기원전 인도인들의 언어 記述과 언어 본질에 관한 연구방법이 그대로 중국을 거쳐 조선에까지 수 천년간 면면히 계승되어 장구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각 문화별로 언어에 대한 연구 전통이 민족적 또는 지역적인 개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질적인 언어체계에 따른 다각적인 사유방식을 통하여 더욱 완전한 연구 방법과 관념을 모색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당송과 명청시기의 200여 종이 넘는 운서(韻書)·운도(韻圖)와 조선 전후기의 적지 않은 운서 및 운도는 이러한 사유전통이 빚어낸 성과물

이었으며, 특히 조선 초기의 한글은 이러한 사유전통과 조선나름의 문화적 역량을 배경으로 세상의 모든 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음성문자로서 창제되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서양의 기술, 제도, 사상, 종교, 철학 등 제반 문물들이 밀어닥쳐 들어와 西勢東漸의 시대가 되면서 수천년간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동양의 어음에 대한 사유전통은 화석화되어 버렸고, 오늘날 서양과 동양의 언어에 대한 연구방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모든 어음자료들은 서양의 학문방법과 관점에 의해 결론지어지는 경향이다.

본고에서는 인도 - 중국 - 조선을 거치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 기술과 언어 본질에 관한 연구 전통<sup>1)</sup>에 대해 개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양에서 수천년 동안의 어음에 대해 논의되었던 집적된 인류 사유체계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세상의 모든 어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창제된 한글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아울러 그의 현대적 의의를 탐구하여 앞으로 한글음성문자가 갖는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sup>2)</sup>.

## 2. 언어 이론 및 정음관의 전승

### 2.1 인도

약 기원전 1500년 인도에는 고대 산스크리트어(梵語)로 씌여진 《베다veda》라는 전적이 있었는데 브라만교의 최고의 경전이였다. 이 베다가 후세에 정확하게 전승되어야 할 필요때문에 인도에서는 일찍이 언어와 문자가 중시되어 音韻·語法·詞源·音律·天文 등이 고도로 발달하였고 아울러 언어의 영구불변을 주장하는 언어사상이 성립되었다<sup>3)</sup>.

智廣의 《悉曇字記》의 기록에 따르면<sup>4)</sup>, 梵語의 자음(體文)은 35개인데, 앞의 25字

- 1) 동양의 언어 본질에 관한 연구 전통을 본고에서는 '正音觀'이라고 명명한다.
- 2) 본고는 이현복교수의 <한글음성문자>: "훈민정음의 창제원리를 연장하고 확대하여 모든 인간의 말소리를 적절히 적을 수 있는 한글음성문자로 발전시키자는 의도에서 이를 고안하였다."(《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1989.)에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한글의 연원과 창제원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3) 불교의 언어문제에 대해선 季羨林, <原始佛教의 語言問題> · <再論原始佛教의 語言問題> · <三論原始佛教의 語言問題>, 《季羨林學術論著自選集》, 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1年.
- 4) 《佛光大辭典》,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9. 4565-4569쪽.

는 5字씩 발음부위에 따라 牙·齒·舌·喉·脣聲의 五類聲이라고 지칭되고, 또한 각 자음(devānagarī)는 발음방법에 따라 ‘不送氣清音 - 送氣清音 - 不送氣濁音 - 送氣濁音 - 鼻音’의 순서로 분류되었다<sup>5)</sup>. 다음의 도표를 보자.

五聲類	牙聲(喉音)	ka	kha	ga	gha	ṅa
	齒聲(齶音)	ca	cha	ja	jha	ṅa
	舌聲(斷音)	t	ṭha	ḍa	ḍha	ṅa
	喉聲(齒音)	ta	tha	ḍa	ḍha	ṅa
	脣聲(脣音)	pa	pha	ba	bha	ma
徧口聲	ya	ra	la	va	śa	
	ṣa	ṣa	ha	llaṃ	ksa	

또한 梵語의 모음(摩多)은 a, ā, i, ī, u, ū, ə, ai, o, au, r, ṛ, ḷ, ḹ, am, aḥ의 16개가 있다. 그 중 드물게 쓰이는 r, ṛ, ḷ, ḹ字를 別摩多라고 하고 나머지는 通摩多 또는 悉曇 12韻, 悉曇 12章이라고 한다. am, aḥ는 a의 轉化로써 본래 운이 아니므로 16자에서 제하면 14음이 된다. 그리하여 자음(體文)을 위쪽에 두고 모음(摩多)을 우측에 배열하여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梵語의 전체 음절을 맞추어 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도표식으로 된 교과서를 ‘siddham’ ‘siddhām’ (悉曇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도인들의 어음 기술 방법은 東漢이래 불교가 전래되면서 중국에 직접적으로 전해졌다.

또한 불교의 언어사상은 중국의 문인들에게 충격과 깨우침을 주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히 위협적이었다. 즉 修行의 三密門의 하나라고 하여 교의상 언어에 높은 지위를 부여하였던 密敎에서는 범어의 보음과 원음 및 조합방법을 유기적으로 배합한 <悉曇章>이 범어의 음절표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음의 총목이라고 여겼다<sup>6)</sup>.

오른편의 12字 (즉, ka, kā, ki, kī, ku, kū, ke, kai, ko, kau, kaṃ, kaḥ)는 迦(ka)字의 轉音이다. ‘迦’字母 하나가 12字를 조합해낸다. 이와 같이 (34개의) 하나하나의 자모가 각각 12자

5) 각 자음은 또한 口腔의 閉鎖度에 따라 (i) Contact (ii) Slight contact (iii) Slight openness (iv) Openness로 음이 四分되었다. 이를 (i) Contact (ii) Slight contact (iii) Half contact (iv) Non-contac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구개음을 예를 들어 대입시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Contact: c ② Half contact: y ③ Half-openness: f[ç] ④ Openness: i:( ALLEN, W. S 《Phonetics in Ancient India》, Oxford, 1953. pp.25-26.) 그리고 35개 자음 중 나머지 뒤의 10字는 徧口聲(입에서 전부 음을 내는 소리: 음절음)이라고 한다.

6) 岑麒祥, <古印度人對於語言的看法和語法分析>, 《語言學史概要》, 北京大學出版社, 1988年. 10-16쪽.

를 조합해내어 한번 회전하면 408자가 조합된다. 만약 二合·三合·四合된 복보음이 더해지면 13,872字가 생기게 된다. 이는 《悉曇章》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이고 영구 불변하는 字이다. 三世(前·現·來世)의 불교법사들은 모두 이 글자로 법리를 강설하므로 聖語라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凡語인데 정대한 도리가 아니므로 모두 아류를 좇은 글자요 말일 따름이다. 만약 이러한 언어를 따른 것이 있다면 이는 곧 妄語라고 하기도 하고 無義語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聖語를 따른다면 무량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sup>7)</sup>.

즉 34개의 보음이 12개의 원음과 결합하여 408개의 음절을 만들어내고 다시 복보음 음절을 만들게 되면 13,872종의 조합을 이루는데 바로 이 13,872개의 음절을 ‘聖語’라고 하였다. 그 외의 어음은 모두 凡語에 속하는데 凡語는 영구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교의 교리를 강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불교에는 창조신인 브라만(梵天)이 언어와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기원설이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倉頡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 등을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sup>8)</sup>. 이를 불교의 기원설과 비교해보면 조금 격이 떨어지므로 불교도들이 유교나 도교에 비해 우월함을 선전할 때 특히 이 점을 강조하여 중국 고유의 한자와 한문 저작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다<sup>9)</sup>.

범천과 法樓는 천축에 있었고 黃帝의 사관인 倉頡은 중국에 있었다. 범천과 法樓는 맑은 하늘을 본받아 지었고 倉頡은 새발자국의 모양을 닮았다. 획을 구성하는 데에서는 진실로 다른 것이지만 이치를 전함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sup>10)</sup>.

그리고 불교에서는 오늘날의 세계는 毀滅의 劫災인데 범문만이 다음 겁의 세계로 영원히 유전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언어와 문자는 소멸된다고 하였다. 불교의 주장대

7) 空海(774-835), 《梵字悉曇字母并釋義》: “右十二字者一個迦字之一轉也. 從此一迦字母門出生十二字, 如此一一字母各各出生十二字, 一轉有四百八字. 如是有二合三合四合轉, 都有一萬三千八百七十二字. 此悉曇章本有自然真實不變常住之字也. 三世諸佛皆用此字說法, 是名聖語. 自餘聲字者, 是則凡語也. 非法然之道理, 皆隨類之字語耳. 若隨順彼言語, 是名妄語, 亦名無義語. 若能隨順聖語, 即得無量功德.”

8) 《說文解字·序》: “黃帝之史倉頡見鳥獸蹏迹之迹, 知分理之可相別異也, 初造書契.”

9) 饒宗頤, <中國典籍有關梵書與梵書與法書起源的記載>, 379-384쪽, (《梵學集》, 上海古籍出版社, 1993년)

10) 僧祐(445-518), 《出三藏記集》卷一, <胡漢譯經音義同異記>: “梵及法樓居于天竺, 黃史倉頡居于中夏. 梵法取法於淨天, 倉頡因華於鳥跡. 文畫誠異, 傳理則同矣.”

로라면 한자로 쓰여진 문헌은 장래 겁재를 당할 때 전부 훼손되는 것이다.

阿察囉(aksara)라는 것은 唐에서 문자라고 하는 것이다. 혹은 常住라고 하기도 한다. 常住라고 하는 것은 梵字의 경우에만 그 명칭이 그러하고 여러 나라의 문자는 이와 다르다. 무슨 뜻인가. 東夷, 南蠻, 西戎, 北狄 등 여러 오랑캐 나라에서 갖고 있는 문자는 小聖이나 睿才가 만든 언어를 따라 문자를 만들었는데 훗날 겁을 만나 三災를 지내면 모두 훼손되므로 상존할 수 없다. 오직 범문만이 범천왕의 위아래로 좇아 전겁에서나 후겁에서나 모두 범천왕이 말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백겁을 거쳐도 차이가 없으므로 常住라고 말하는 것이다<sup>11)</sup>.

그러므로 이러한 불교의 언어사상이 중국에 전래되면 유교의 근본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협스런 것이었으므로 유교 및 유교경전의 영구불변을 보장하기 위해 불교의 언어사상을 능가할 수 있는 정밀한 언어이론체계가 요구되었다.

## 2.2 중국

漢字의 특성은 글자음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표음문자가 아니라 글자모양으로 동서고금을 소통할 수 있는 표의문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옛부터 한자라는 문자체계는 한자문화권의 공통어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오늘날까지도 한자문화권내에서는 필담단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자는 어음에 의해 의미체계가 학습되므로 불완전한 표음기능을 가지는 한자에 적절하게 표음할 수 있는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었으며 이러한 몇차례의 과정을 통해 어음에 대한 변별능력이 제고되었다.

특히 東漢이래 불교경전이 중국에 전해져 불경을 번역하면서 梵語學의 영향으로 정밀한 어음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불교경전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받아들인 외국문헌이므로 역경사업에 종사한 승려들은 언어문제에 부딪치게 되어 그들은 진지하게 梵漢언어의 특징을 대비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에 비로서 어음구조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범어가 각 글자음마다 體文(자음)과 摩多(모음)으로 나뉘는 개념은 중국 고유의 雙聲·疊韻의 원리에 응용되어 음을 표기하는 데에 있어 反切이 발명되었다<sup>12)</sup>. 이는 한자의 음절을 聲과 韻으로 나눈 초보적인 개념으로서 기존의 표음방식

11) 慧琳(737-820), 《一切經音義》卷二十五 <梵經條> :“云阿察囉, 唐云文字. 或云常住. 言常住者梵字獨得其稱, 諸國文字不同此例. 何者, 如東夷, 南蠻, 西戎, 北狄及諸胡國所有文字, 並是 小聖睿才隨方語言演說文字, 後遇劫盡三災起時, 悉皆磨滅, 不得常存. 唯有此梵文隨梵天王上下, 前劫後劫皆用一梵天王所說, 設經百劫亦不差別, 故云常住.”

과는 구별되는 과학적이고 기능적이며 새로운 차원의 표음방법이었다.

反切上字	反切下字
聲母	韻母

또한 인도의 승려들이 중국어를 습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풍부하고 정밀한 범어학의 지식을 동원하여 범어의 격식에 한자를 대입하여 만든 韻圖를 만들었는데 이는 또한 중국의 승려들이 범어를 익히는데 긴요한 참고서가 되었다. 후에 불교에 관심을 갖던 문인들은 점차 운도에 구현되는 어음의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어 불가에서 전해진 운도를 통해 정밀한 음운구조를 터득하게 되었다.

聲母		韻頭		韻腹	韻尾	聲調
36字母		四等	開·合口	主要母音	陽·入聲韻 陰聲韻	平上去入
清濁	七音					

운도에 구현된 정밀한 어음구조와 인도의 음성학에 직접 영향을 받은 각종 용어들이 漢語의 구조를 인식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운도는 범어의 어음체계에 맞춰진 漢語의 어음구조일 수도 있고 또 인도의 음성학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라고 하더라도 한어의 어음구조에 따라 변용되었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문화적 접촉으로 인하여 범한어의 이질 언어사이를 조율하려는 시도로서 운도가 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문인들은 고도의 어음변별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송대 신유학이 성립되면서 중국의 문인들은 이전의 사상계를 주도하여 왔던 불교나 도교를 배척하고 아울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체계의 유교를 세워 그의 정통적 지위를 확립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우선 도가계통의 노장사상과 불교에 정통해야만 했다. 도교와 불교의 장단점을 통찰한 연후에야 철학의 근저로부터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대의 사대부 지도층은 불교나 도교에 대해 모두 조예가 깊었으며 표면적으로는 도불배척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도불교의 심오한 철학체계를 융합 도야하여 수용함으로써 종전의 유교에 결여되었던 심오한 이론과 풍부한 사상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 12) 反切이란 성모가 같은 글자와 운모가 같은 두 개의 글자로 어느 한 글자의 음을 표음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都宗切, 冬 : 都 d(u) + 宗 (z)ong = 冬 (dong). 그리고 한자는 기본적으로 표의문자이므로 反切이 발명되기 전에도 譬況, 讀若, 直音 등 字音を 구체적으로 표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과 학술적 배경에서 복송시기의 邵雍(1011-1077)은 부친 邵古에게서 습득한 불가계통의 범어학 지식과 스승 李之才로부터 전수받은 도교계통의 象數學 이론을 방증으로 삼아 《皇極經世·聲音唱和圖》를 지었는데 梵語만이 聖語라고 하는 불교의 언어사상을 능가할 수 있는 유교본위의 정밀한 언어이론체계였다.

소옹은 하늘과 땅의 四象은 八卦의 숫자와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여겨서<sup>13)</sup> 음절을 전통적인 聲韻兩分法에 따라 나눈 후, 하늘(天)을 상징하는 聲은 天干의 수 10에 일치시켜 10類로 구분하고, 땅(地)을 상징하는 音은 地支의 수 12에 일치시켜 12類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體數, 用數, 變數(動數), 化數(植數) 등의 숫자의 체계를 聲類와 韻類의 수 그리고 조합·분포관계에 부합시켜 어음을 분석하는 강령으로 삼았다. 즉 소옹이 《皇極經世書》에서 천명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象數체계로 우주의 일체를 개괄하는데 있었으므로 소옹은 상수학 이론의 體數·用數·變數·化數에 맞추기 위해 <聲音唱和圖>에 글자가 없는 음의 자리까지 배정하였고 또 어음단위의 분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관적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天聲체계는 하늘의 四象(日月星辰)에 平·上·去·入聲의 四聲을 각각 연계시키

13) 《皇極經世·觀物內篇》：“太陽·少陽·少剛·太剛의 體數는 각각 10이고 太陰·少陰·少柔·太柔의 體數는 각각 12이다. 太陽少陽太剛少剛의 體數를 進하고 太陰少陰太柔少柔의 體數를 退하면 太陽少陽太剛少剛의 用數가 되고 太陰少陰太柔少柔의 體數를 進하고 太陽少陽太剛少剛의 體數를 退하면 太陰少陰太柔少柔의 用數가 된다. 太陽少陽太剛少剛의 체수는 160이고 太陰少陰太柔少柔의 체수는 192이다. 太陽少陽太剛少剛의 용수는 112이고 太陰少陰太柔少柔의 용수는 152이다. 太陽少陽太剛少剛의 用數로 太陰少陰太柔少柔의 用數를 어울리게 하면 日月星辰의 變數가 되고 太陰少陰太柔少柔의 用數로 太陽少陽太剛少剛의 用數를 어울리게 하면 水火土石의 化數가 된다. 日月星辰의 變數는 17024로 이를 動數라고 하고 水火土石의 化數는 17024로 이를 植數라고 한다. 다시 日月星辰과 水火土石의 變化통수를 어울리게 하면 289,816,576인데 이를 動植通數라고 말한다. (太陽之體數十, 太陰之體數十二, 少陽之體數十, 少陰之體數十二, 少剛之體數十, 少柔之體數十二, 太剛之體數十, 太柔之體數十二. 進太陽少陽太剛少剛之體數退太陰少陰太柔少柔是謂太陽少陽太剛少剛之用數, 進太陰少陰太柔少柔之體數退太陽少陽太剛少剛之體數是謂太陰少陰太柔少柔之用數. 太陽少陽太剛少剛之體數一百六十, 太陰少陰太柔少柔之體數一百九十二, 太陽少陽太剛少剛之用數一百一十二, 太陰少陰太柔少柔之用數一百五十二. 以太陽少陽太剛少剛之用數唱太陰少陰太柔少柔之用數是謂日月星辰之變數, 以太陰少陰太柔少柔之用數和太陽少陽太剛少剛之用數是謂水火土石之化數. 日月星辰之變數一萬七千二十四謂之動數, 水火土石之化數一萬七千二十四謂之植數. 再唱和日月星辰水火土石之變化通數二萬八千九百八十一萬六千五百七十六謂之動植通數.)”

고 각 四聲은 다시 日·月·星·辰의 넷으로 나뉘어 16개 小類가 된다. 각 小類에는 韻類가 10개씩 포함되는데 10은 太陽, 少陽, 太剛, 少剛의 각각의 體數이다. 그리하여 모두 160개의 운류가 있게 되는데 이 160은 太陽少陽太剛少剛의 體數이다. 그리고 소용은 ‘天地之交十之三’, 즉 天地가 교합하는 3/10은 소리와 글자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각 小類의 마지막 세개 류에는 소리와 글자가 없이 하늘의 둥근 모양을 상징하는 까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였다. 그리하여 나머지 일곱류에는 112개의 韻類가 포함되는데 112는 바로 太陽少陽太剛少剛의 用數이다. 그 중에도 음은 있지만 해당 글자가 없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글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글자를 대입시켰다.

또한 地音체계는 땅의 四象(水火土石)에 字音의 開·發·收·閉(一·二·三·四等에 해당)를 연계시켰는데 각 류는 다시 水·火·土·石의 4류로 나뉘어 모두 16개 小類이다. 각 小類마다 12개의 聲類가 포함되는데 12의 수는 바로 太陰, 少陰, 太柔, 少柔의 각각의 體數이다. 그리하여 모두 192개의 聲類가 있는데 이 192는 또한 太陰少陰太柔少柔의 體數이다. 天聲처럼 地音에도 음도 글자도 없는 것이 40개인데 땅의 네모난 모양을 상징하여 까만 네모(■)로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192개의 聲類에서 40개를 제하면 152개가 남는데 152는 바로 太陰少陰太柔少柔의 用數이다. 그 중에도 음은 있지만 해당 글자가 없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글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글자를 대입시켰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正聲: ① 有字 + ○ + ●	10聲 × 4 × 4 = 160(體數)
② 有字 + ○	7聲 × 4 × 4 = 112(用數)
③ 有字	112 - 29 = 83
正音: ① 有字 + □ + ■	12音 × 4 × 4 = 192(體數)
② 有字 + □	192 - 40 = 152(用數)
③ 有字	152 - 40 = 112
全數: ① 160(正聲의 體數) × 192(正音의 體數) = 30,720	動物의 全數
192(正音의 體數) × 160(正聲의 體數) = 30,720	植物의 全數
② 112(正聲의 用數) × 152(正音의 用數) = 17,024	動物의 用數
152(正音의 用數) × 112(正聲의 用數) = 17,024	植物의 用數
③ 17,024(動物의 用數) × 17,024(植物의 用數) = 89,816,566	動植의 全數

《聲音唱和圖》의 ‘唱’과 ‘和’는 ‘天聲唱地音’ 또는 ‘地音和天聲’의 의미이다. 즉 152

14) 유창균, <황국경세가 국어학에 끼친 영향>, 동아대: 『석당논총』 제15집, 1989.



개의 聲類와 112류의 韻類를 차례로 병합시킨 후, 變數 · 化數의 음절에 합치시키는 것은 세상 만물의 모든 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래에 《皇極經世 · 聲音唱和圖》를 수록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天 聲 圖	十卷				九卷				八卷				七卷			
	下		上		下		上		下		上		下		上	
	辰 辰 聲 入 翁	辰 星 聲 入 關	辰 月 聲 入 翁	辰 日 聲 入 關	星 辰 聲 去 翁	星 星 聲 去 關	星 月 聲 去 翁	星 日 聲 去 關	月 辰 聲 上 翁	月 星 聲 上 關	月 月 聲 上 翁	月 日 聲 上 關	日 辰 聲 平 翁	日 星 聲 平 關	日 月 聲 平 翁	日 日 聲 平 關
○	○	八ua	舌a	退uai	愛ai	化ua	個a	每uai	宰ai	火ua	可a	回uai	開ai	禾ua	多a	
○	○	○	○	瑩uaŋ	亘əŋ	況uaŋ	向aŋ	永uəŋ	井əŋ	廣uaŋ	兩aŋ	兄uəŋ	丁əŋ	光uaŋ	良aŋ	
○	○	○	○	巽uan	良ən	半uan	旦an	允uan	引ən	犬uan	典an	君uan	臣ən	元uan	千an	
玉uəu	六əu	霍uau	岳au	○	奏əu	報uau	孝au	○	斗əu	寶uau	早au	○	牛əu	毛uau	刀au	
北uəi	德əi	骨ui	日i	貴uəi	○	師ui	四i	水uəi	○	○	子i	龜uəi	○	衰ui	妻i	
○	○	○	○	兎u	去o	用uŋ	象oŋ	虎u	鼠o	雨uŋ	孔oŋ	烏u	魚o	龍uŋ	宮oŋ	
妾ap	○	十əp	○	○	欠am	○	禁əm	○	坎am	○	審əm	○	男am	○	心ə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地 音 圖	石 石 音 閉 濁	石 土 音 閉 清	石 火 音 閉 濁	石 水 音 閉 清	土 石 音 收 濁	土 土 音 收 清	土 火 音 收 濁	土 水 音 收 清	火 石 音 發 濁	火 土 音 發 清	火 火 音 發 濁	火 水 音 發 清	水 石 音 開 濁	水 土 音 開 清	水 火 音 開 濁	水 水 音 開 清
	糾g'	棄k'	揆g	癸k	乾g'	丘k'	近g	九k	□	巧k'	□	甲k	□	坤k'	□	古k
堯ŋ	□	賢Y	血x	月ŋ	仰ŋ	雄Y	香x	牙ŋ	瓦ŋ'	華Y	花x	吾ŋ	五ŋ'	黃Y	黑x	
民m	米m'	寅j	一?	眉m	美m'	王j	乙?	貌m	馬m'	交j	亞?	目m	母m'	□	安?	
未ŋ	尾ŋ	吹v	飛f	□	□	□	□	萬ŋ	晚ŋ	凡v	法f	文ŋ	武ŋ	父v	夫f	
瓶b'	匹p'	鼻b	必p	平b'	品p'	備b	丙p	排b'	朴p'	白b	百p	旁b'	普p'	步b	卜p	
■	■	■	■	田d'	天t'	弟d	帝t	覃d'	貪t'	大d	丹d	同d'	土t'	兌d	東t	
■	■	■	■	離l	呂l'	年n	女n'	拳l	冷l'	南n	姝n'	鹿l'	老l'	內n	乃n'	
■	■	■	■	全dz'	七ts'	匠dz	足ts	才dz'	采ts'	在dz	哉ts	曹dz'	草ts'	自dz	走ts	
■	■	■	■	□	□	象z	星s	□	□	□	三s	□	□	寺z	思s	
■	■	■	■	二nz	耳nz'	石z	手s	□	□	士z	山s	■	■	■	■	
■	■	■	■	辰dz'	赤ts'	□	震ts	崇dz'	又ts'	乍dz	莊ts	■	■	■	■	
■	■	■	■	呈dz'	丑tc'	直dz	中tc	茶dz'	折tc'	宅dz	卓tc	■	■	■	■	

15) 재구음에 대해선 拙稿, 《皇極經世 · 聲音唱和圖研究》(연세대 박사논문, 1996.)의 V. 《皇極經世 · 聲音唱和圖研究》의 음운체계를 참조.

다시 말하여 소옹은 《周易》을 연구하면서 도출한 상수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음을 숫자로 연역한 후, 표준적이고 이상적인 어음체계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訛音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어음 안에는 도가 담겨져 있으므로 우주만물의 생성 원리를 적용시켜 올바른 음을 구현해내야만 진정한 도를 재현할 수 있다는 ‘天人合一’, ‘聲音教化思想’의 전통적 사유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후대에 소옹은 유학의 ‘北宋五子’의 한 사람으로 추대되어 그의 저서인 《皇極經世書》도 유학의 경전으로서 매우 존중되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 明代에는 경서에 대한 宋代의 여러 학설을 집대성하여 《永樂大典》, 《四書大典》, 《性理大典》을 편찬하였는데 소옹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는 《性理大典》의 7~13권에 수록되어 있었다. 당시 유학은 지식과 생활, 행위와 이념을 선도하는 총체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의 중심사상으로 기능하였으므로 문인들이 신유학을 공부하면서 접하게 된 소옹의 정음관은 바로 그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언어관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약 120여 종의 명청시기의 대부분의 운도는 작자들의 自述과 자료 분석을 통해 볼 때, 여러 方言이나 古音에 기초하여 인류 공동의 어음을 표현하는 正音體系를 구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체제면에서도 ‘音(聲母를 가리킴)’, ‘聲(韻母를 가리킴)’, ‘開·發·收·閉(四等으로 구별)’ 등의 술어가 명·청시기의 운도에 계속 사용되었고 天聲과 地音에 글자가 없는 빈자리를 ‘●(天聲)’과 ‘■(地音)’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그대로 계승되었다<sup>16)</sup>. 이는 바로 유교적 언어관, 즉 邵雍의 正音觀이 계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회가 인정하는 통일된 규범의 정음 체계가 없었으므로 작자들은 각자 정음의 범주를 정하고 그들의 어음 지식과 심음 능력에 따라 각양각색의 운도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작자들마다 方言 및 古音을 추구하는 어음기준이 달랐고 또 무엇보다도 대입된 글자가 표음기능이 불완전한 ‘漢字’였다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제작된 어떠한 韻書나 韻圖의 음운체계도 표준이 될 수가 없었다. 어음에 대한 동양 고유의 사유방식과 고전적 언어기술의 연구 전통이 이상적인 방법론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지만 결국 중국에서는 한자가 갖는 표음에 있어서의 한계를 그대로 露

16) 潘耒는 《類音》에 18개의 글자없는 음을 설정하였고 熊士伯은 《等切元聲》의 <元聲韻譜>에 11개의 글자없는 음을 제시하였으며 江永과 江有誥도 36자모 이외에 14개의 글자없는 음을 첨가시켰다. 勞乃宣도 36자모 이외에 22개의 글자없는 음을 정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邵雍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의 영향이라고 추정된다.

모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 2.3 조선

고려말 신유학(性理學)이 도입된 후, 이를 적극 수용한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 조선 왕조가 개창되자 유교는 國是로 천명되었다. 世宗 元年(1419)에는 유교의 지도이념에 합당한 체제정비를 수행하고 유교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하고자 《四書大典》, 《五經大典》, 《性理大典》을 수입하여 본격적으로 學習·研鑽하게 되어 유교의 이념은 국가·사회·가정·개인에게 모두 적용되었고 사회의 모든 문화양상은 유교를 사상적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性理大典》 7~13권에 수록되어 있던 邵雍의 《皇極經世書》의 聲音理論은 바로 유교 이데올로기에서 보편적인 聲音觀으로 인식되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으니 朝鮮朝 純祖·憲宗·哲宗연간에 살았던 李圭景(1788-?)은 소옹이야말로 聲音學者 중의 第一人者라고 하면서 “邵子の 성음학에 능통해야만 비로소 韻學을 알 수 있을 것(能通邵子之聲音者, 始能知韻字乎.)”<sup>17)</sup>이라고 한 것은 소옹이 한글의 창제 무렵부터 그 뒤로 500여 년간 조선의 성음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이다<sup>18)</sup>.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천지 자연의 어떤 말소리도 반드시 그 말소리에 합당한 천지 자연의 글자가 있는 법이다. 만약 풍토에 따라 말소리가 각각 다르면 그 말소리에 합당한 글자도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말소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리에 합당한 글자가 없어서 다른 말소리를 적는 글자를 빌어 사용하는 것은 마치 등근 구멍에 모란 자루를 끼우는 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말소리가 중국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글자(한자)를 빌어 쓰고 있으므로 일상 쓰는 말소리의 만분의 일도 적어내지 못하고 있다.”<sup>19)</sup>고 개탄하였다.

17) 李圭景, 고전국역총서, 《五洲衍文長箋散稿》XVII, 서울: 민문고, 1989. 218쪽·七九쪽.

18) 또한 肅宗 甲午年(1714)에는 ‘十哲’의 한 사람으로 추대되었다. ‘十哲’은 원래 《論語·先進篇》에 공자가 지적한 훌륭한 제자 열사람 즉, 德行엔 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엔 宰我·子貢, 政事엔 冉有·季路, 文學엔 子游·子夏를 지칭하였는데, 뒤에 이들을 문묘에 배향하면서 顏淵을 五聖으로 올리고 대신 子張을 넣었다. 조선의 숙종시기에는 여기에 다시 宋朝의 六賢인 周敦頤·程顥·程頤·邵雍·張載·朱熹를 十哲의 列에 올렸다. (李圭景, 고전국역총서, 《五洲衍文長箋散稿》XIV, 서울: 민문고, 1989. 180쪽.)

19) 《訓民正音·鄭麟趾序》: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鉏鋤也. 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強之使同也. 吾東方禮樂文章 倅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우리 조선은 안팎으로 山河가 저절로 한 구획을 이루어 지리와 기후조건이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발음이 어찌 중국음과 부합될 수 있겠는가? 한자음이 중국과 다른 것은 자연스런 이치이다<sup>20)</sup>.

즉 세종은 지형에 따른 방언의 차이는 인정하였지만 본연의 어음 그 자체는 달라질 수 없다고 하여 정음(표준음)의 존재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지형이 한 구획을 이루어 지세와 기후의 조건이 아주 달라지면 말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조선은 중국과 안팎으로 山河가 가로 놓여 지형의 특성상 근본적으로 말소리 자체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소리가 다르므로 이에 따라 글자도 같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인식에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 25년(1443)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훈민정음 28자(자모 17자, 운모 11자)는 성음의 이치에 따라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을 상형한 글자꼴로서<sup>21)</sup> 근본적으로 유교적 언어관, 즉 邵雍이 《皇極經世·聲音唱和圖》에서 제시한 어음의 생성원리를 바탕으로 창제되었다. 그리하여 《切韻指掌圖》, 《古今韻會舉要》 등 기존의 운서나 운도에 반영되어 있는 음운이론을 참조하여 세상의 모든 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체계를 연역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여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음도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제작된 예도 적지 않았다. 한가지 예를 들면,

半舌에는 輕重의 두 음이 있다. 그러나 운서의 字母에는 하나뿐이고 국어에서도 경중이 나뉘지 않지만 모두 (각각) 음을 이룰 수 있다. 만약 갖추어 쓰고자 한다면 脣輕音의 예와 같이 〇를 ㄹ의 아래에 連書하여 半舌輕音으로 쓰고 혀를 살짝 윗 잇몸에 닿게 하여 발음한다<sup>22)</sup>.

그러나 ‘ㄹ’의 용례는 《訓民正音·用字例》 뿐만 아니라 어떤 15세기 문헌에도 명기되지 않았다. 이는 음의 생성원리에 의해 인위적으로 ‘ㄹ’음의 문자를 상정하였던 것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20) 《東國正韻·序文》: “矧吾東方 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

21) 《訓民正音解例本·制字解》: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이를 만들었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22) 《訓民正音·合字解》: “半舌有輕重二音. 然韻書字母唯一,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〇連書ㄹ下, 爲半舌輕音, 舌乍附上齶.”

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종과 집현전학자들이 어음과 글자를 연관지은 것도 《性理大典》에 실려있는 《皇極經世·聲音唱和圖》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용은 그의 상수학 이론으로 세상만물의 음을 추산해낸 후, 각 음에 해당 글자를 대입하였다. 또 음은 있지만 해당 글자가 없는 경우 □와 ○로 표시하고, 음도 글자도 없으면 ■와 ●로 나타내었는데 소용의 이러한 방식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에게 천지자연의 글은 천지자연의 음(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이 말소리를 글자꼴에 합하여 표음문자를 창제한 것은 당시 崔萬理를 위시한 완고한 유학자들이 언문창제를 반대하는 중요한 빌미가 되었다. 그들은 언문이 한자의 구성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중국에 대한 ‘至誠事大’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변하였다.

만약 언문이 모두 옛 글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새 글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자형은 비록 옛날의 글자체와 비슷합니다만 소리로써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어긋나는 일이며 실로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sup>23)</sup>.

그러나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학문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다음의 예를 들어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범음은 중국에서 행해지지만 공자의 경서가 발제하(인도와 중국 국경의 강이름)를 넘어가서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글자의 꼴에 따르고 소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무릇 소리가 있으면 이에 부합되는 글자가 있는 것이거늘 어찌 소리없는 글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sup>24)</sup>

조선초 正音연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은 실용적 측면에서 인정받아 대중의 문자로서 널리 이용되었다. 그러나 世祖의 왕위찬탈로 인해 집현전 중심의 학풍의 맥이 끊기게 되었고 또 燕山君의 훈민정음의 탄압<sup>25)</sup>으로 인하여 부녀자들이나 하

23) 세종 26년 2월 20일, <崔萬理等 諺文創製反對上疏文>: “儻曰, 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24) 《洪武正韻譯訓·序文》: “古人謂梵音行於中國, 而吾夫子之經不能過跋提河者, 以字不以聲也. 夫有聲, 乃有字, 寧有無聲之字耶.”

25) 연산군은 정치적 파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훈민정음의 사용을 엄금하였다. “이제부



로 소음이 말하는 正音·正聲이며 正聲과 正音を 합한 56이 바로 列宿의 倍數라고 하였다. 다음의 도표를 보자.

初聲 24字	一清	フ 君	ㄷ 斗	ㅂ 驚	ㅅ 卽	ㅎ 虛	ㅍ 戌
	二濁	ㄲ 蚪	ㅌ 覃	ㅃ 步	ㅆ 姦	ㅎ 洪	ㅆ 邪
	三清	ㅋ 快	ㅍ 吞	ㅍ 漂	ㅌ 侵	ㅎ 挹	ㄱ 閭
	四濁	ㅇ 業	ㄴ 那	ㅁ 彌		ㅇ 欲	ㄷ 穰

中聲 32字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一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二翕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三關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四翕	ㅖ	ㅗ	ㅛ	ㅜ	ㅠ	ㅡ	ㅣ	ㅓ	

또한 최석정은 다음과 같이 終聲을 설정하였다.

모든 글자에 初·中·終 三聲이 있어 三才의 풀을 갖추고 있다. 초성은 24성, 중성은 32음 그리고 종성은 초성의 모든 글자를 쓰되, 차칭과 순탁의 글자를 제하면 종성 12자를 얻는데 두 개가 합치된 글자가 4개가 있어 모두 합하면 16자이다<sup>30</sup>).

牙音	ㅇ	ㄱ	
舌音	ㄴ	ㄷ	ㄷ
脣音	ㅁ	ㅂ	
齒音	ㄷ	ㅍ	ㅍ
喉音	ㅇ	ㅎ	
二合	舌牙 ㄴ	舌脣 ㄴ	舌齒 ㄴ
			舌喉 ㄴ

29) 최석정은 正聲二十四라고 하였지만(《經世正音》: “按十七聲衍爲二十四分爲清濁. 卽邵氏所謂正音也.”) 실제로는 23字를 설정하였고, 또한 최석정은 十一音에는 ‘ㅣ’를 설정하였으나 正音三十二에는 ‘ㅣ’를 설정하지 않았다.(《經世正音》: “按十一音衍爲三十二分爲關翕. 卽邵氏所謂正聲也.”) 初聲이 23字이면서 正聲二十四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中聲이 33字이면서 正音三十二라고 한 것은 邵雍의 正音(24)·正聲(32)의 수에 억지로 맞추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0) 《經世正韻》: “按凡字有初中終三聲, 以象三才. 初卽二十四聲, 中卽三十二音, 而所謂終者卽初聲諸字是已. 除次清及純濁之字, 得終聲十二, 又二合之字有四, 凡十有六.”

그리하여 최석정은 초성 24자와 중성 32자를 곱하면 768인데 이는 바로 開口 384자와 合口 384자를 더한 숫자이며, 初聲 24자와 中聲 32자 그리고 終聲 16자를 곱하여 산출되는 12288는 바로 만물의 숫자라고 하였다. 또한 최석정은 邵雍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가 俗音만을 근거하였을 뿐이라고 비평하고 다시 古音에 의거하여 바로 잡은 후<sup>31)</sup>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經世正韻·訓民正音圖說》에 나름의 정음체계를 구현해내었다.

다음은 申景濬(旅庵, 1712-1781)의 《訓民正音韻解》에 대해 살펴보자. 그 역시 《訓民正音韻解》에서 邵雍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sup>32)</sup> 우주를 지배하는 象數의 근본을 규명하고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그 보편적인 음운체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신경준은 훈민정음이 조선뿐만 아니라 천하를 위한 聲音大典이라고 주장하고<sup>33)</sup> 다음과 같이 훈민정음의 初聲·中聲·終聲에 대해 각각 정음체계를 구성한 후, 그 체계에 따라 <漢字音韻圖>를 작성하였다.

### ① 初聲體系 (36자모)<sup>34)</sup>

- 31) 崔錫鼎, 《經世正韻·訓民正音準皇極經世四象體用之數圖》: “此圖曰邵氏經世書本例頗加槩括 蓋邵氏只據見在俗音 今依古音 增損更定 如右聲之壬癸 音之亥子丑 不能生物詳著于下文.”
- 32) 《訓民正音韻解》: “邵子の <聲音唱和圖>는 원래 字書로 만든 것이 아니다. 物에는 色·聲·氣·味가 있는데 그 중 聲이 가장 盛하고 글로 써서 分別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글자를 빌어 그 수를 밝혔을 뿐이다. 글자음에 대해서는 정밀히 밝혀지지 않아 후세 글자를 연구하던 이가 조금 바로 잡았으나 아직 미진한 바가 있다. 이제 나의 어리석은 견해로나마 면밀히 검토하여 옳고 바꾸고 버리고 기운 것이 많은데 이는 모두 邵子の 본래 의미를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邵子聲音之圖, 初非爲字書而作也. 物有色聲氣味, 惟聲爲盛, 且可以書別, 故特假之字, 以明其數也. 於字未嘗究精焉. 後之治字者, 頗爲釐正, 而猶有所未盡者, 今後參以愚見, 其所移易刪補者多, 而是不過邵子之本旨云爾.)”
- 33) 《訓民正音韻解》: “여러나라에는 제각기 사용하는 글자가 있지만 ..... 모두 거칠고 어지러워서 규칙이 없다. 이에 비해 훌륭한 문자인 훈민정음은 우리나라에만 혜택이 미치지 아니라 능히 천하를 위한 성음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諸國各有所用文字 ..... 皆不免荒亂無章則正音不止惠我一方而可以爲天下聲音大典也.)”
- 34) 신경준은 初聲체계를 36자로 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지금은 비록 분명하지 않더라도 옛날에는 존재하였던 음들이고 중국 땅에서는 비록 사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知·徹·澄·娘만 해도 우리나라 서북지방 사람들이 이를 많이 쓰고 서울의 泮村人도 간혹 이를 씀으로 이제 옛 법도에 의하여 36母를 갖추었다. (且今雖不明 而古有存者. 中土雖不行 而他國有用處至於知徹澄娘 我國西



宮	角	徵		商		羽		半徵	半商
土	木	火		金		水		半火	半金
脾	肝	心		肺		腎			
喉	牙	舌		齒		脣	脣齒	半舌	半齒
喉音	牙音	舌頭	舌上	齒頭	正齒	重脣	輕脣	半徵	半商
喻 ㅇ	疑 ㅇ	泥 ㄴ	孃 ㄴ	心 ㄴ	審 ㄴ	明 ㅁ	微 ㅁ	來 ㄹ	日 ㄷ
影 ㅇ	見 ㄱ	端 ㄷ	知 ㄷ	精 ㅈ	照 ㅈ	幫 ㅍ	非 ㅍ		
曉 ㅇ	溪 ㅋ	透 ㅌ	徹 ㅌ	清 ㅊ	穿 ㅊ	滂 ㅍ	敷 ㅍ		
匣 ㅇ	群 ㄱ	定 ㄷ	澄 ㄷ	邪 ㅈ	禪 ㅈ	竝 ㅍ	奉 ㅍ		
				從 ㅈ	牀 ㅈ				

② 中聲體系<sup>35)</sup>

開(陽)	正(陽)韻	正(陽)	ㄴ	ㄷ	ㄱ	ㅁ	開口
		副(陰)	ㄴ	ㄷ	ㄱ	ㅁ	
	副(陰)韻	正(陽)	ㄴ	ㄷ	ㄱ	ㅁ	齊齒
		副(陰)	ㄴ	ㄷ	ㄱ	ㅁ	
合(陰)	正(陽)韻	正(陽)	ㄴ	ㄷ	ㄱ	ㅁ	合口
		副(陰)	ㄴ	ㄷ	ㄱ	ㅁ	
	副(陰)韻	正(陽)	ㄴ	ㄷ	ㄱ	ㅁ	撮口
		副(陰)	ㄴ	ㄷ	ㄱ	ㅁ	

③ 終聲體系

凝攝	-ㅇ / 東·冬·江·陽·庚·青·蒸
支攝上	ㄴ ㅁ ㄷ ㅁ ㄱ ㄱ ㄱ / 支·微·齊·佳·灰·隊
支攝下	ㄱ ㄱ ㄷ ㄷ ㄱ ㄱ ㄱ / 歌·麻
隱攝	-ㄴ / 眞·文·元·先·寒·刪
蕭攝·尤攝	ㅇ·우 / 蕭·肴·豪·尤
音攝	-ㅁ / 侵·覃·鹽·咸

이상으로 최석정과 신경준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의 연구상황을 대략적으로

北人多用之 在京中泮村人亦或用之. 故今依舊法 備三十六母焉.)”

35) 신경준은 훈민정음의 중성체계에는 없는 ‘ㄴ’ 음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훈민정음에는 ‘ㄴ’가 없으나 초성에 ㄴ ㄷ ㅌ ㅍ를 설정한 것처럼 ‘ㄴ’를 설정하였다.(訓民正音無‘ㄴ’ 今加設初聲之ㄴ ㄷ ㅌ ㅍ. 亦今加設.)”

살펴 보았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특정 언어의 음운체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性理大典》에 수록된 소옹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을 통해 세상만물을 생성하는 象數의 原理를 터득한 후, 象數論에 바탕을 하여 보편적인 음운론의 체계를 세우는데 있었다.

《皇極經世·聲音唱和圖》는 유교과 더불어 전래되었으므로 유교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상이 부상될 때까지 유학자들 간에는 聲音의 이치를 설명하는 기본 원리로써 작용하였던 것 같다. 최석정과 신경준의 이후에도 《皇極經世·聲音唱和圖》의 성음 이치에 정통하여 훈민정음을 도입하여 각자 나름의 정음체계를 재구성하고, 각종 어음 이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상당수의 학자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는 종전에 諺文이라고 등한시하였던 한글의 가치를 비로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sup>36)</sup>.

### 3. 한글 음성문자체계의 원리와 응용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자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어의 매개체로서 기능할 뿐이지만 한글만은 유례없이 수 천년간의 어음에 대한 사유의 집적과 이에 따른 정밀한 언어이론을 배경으로 창제된 문자체계임을 고찰할 수 있었다. 즉 한글은 세상의 모든 어음을 표기하고자 하는 유교적 이념을 배경으로 창제된 각종 어음현상의 경험을 귀결짓는 한 차원 높은 연역적 방법의 문자체계인 것이다.

세종조에 제작된 《訓民正音》·《東國正韻》·《洪武正韻譯訓》을 통해 한글 문자체계의 활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자. 위의 문헌들은 제작 배경과 목적

36) 예를 들어 柳僖(西陲, 1773-1837)의 《諺文志·序文》를 보면 柳僖는 스승 鄭東愈(玄同, 1744-1808)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諺文志》 첫머리에 실었다. “그대는 언문의 지극한 오묘함을 아는가? 무릇 한자는 글자로 글자음을 표시하여 한 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따라 변하므로 옛날 음과 오늘날 음이 어긋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언문으로 기록해둔다면 아무리 오래도록 전해지더라도 본래 음이 변할까 근심하겠는가? 하물며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오묘한 것을 귀히 여기는데 실은 그렇게 간결하고 오묘하게 쓰면 잘못 해석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언문으로 뜻을 전하면 만에 하나라도 잘못 보지 않을 것이니 그대는 언문이 부녀자나 쓰는 글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子知諺文妙乎? 夫以字音傳字音, 此變彼雖變, 古叶今韻屢舛宜也. 若註以諺文, 傳之久遠, 寧失眞爲慮. 況文章必尚簡奧, 以簡奧通情, 莫禁誤看, 諺文往復, 萬無一疑. 子無以婦女學忽之.)”

이 달랐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더라도 상이한 어음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訓民正音·制字解》의 내용을 아래의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五音 (聲)	象形內容	基本字	加劃字	異體字	五行	五時	五音 (樂)	五方
牙	象舌根閉喉之形	ㄱ	ㅋ	ㅇ	木	春	角	東
舌	象舌附上齶之形	ㄴ	ㄷ ㅌ	ㄹ	火	夏	徵	南
脣	象口形	ㅁ	ㅂ ㅃ		土	季夏	宮	中央
齒	象齒形	ㅇ	ㅅ ㅆ	ㅈ	金	秋	商	西
喉	象喉形	ㅇ	ㅎ		水	冬	羽	北

		字形	象形內容
基本 字	、	圓	象乎天
	—	平	象乎地
	丨	立	象乎人

		制字基準	字形說明
初 出 字	ㄱ	、與—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ㅋ	丨與、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ㅁ	—與、合而成	亦取天地初交之義也
	ㅂ	、與丨合而成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再 出 字	ㅇ	與ㄱ同而起於丨	起於丨而兼乎人, 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ㄴ	與ㅋ同而起於丨	起於丨而兼乎人, 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ㅅ	與ㅁ同而起於丨	起於丨而兼乎人, 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ㅆ	與ㅂ同而起於丨	起於丨而兼乎人, 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그러나 《訓民正音·用字例》에 예시된 고유한 우리말의 초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 ㄱ: 감(柿), 궤(蘆)
- ㅋ: 우케(未春稻), 콩(大頭)
- ㅇ: 러울(獺), 서에(流澗)
- ㄷ: 뒤(茅), 담(牆)
- ㅌ: 고티(藺), 두텁(蟾蜍)
- ㄴ: 노로(獐), 남(猿)

- ㅂ : 불(臂), 벌(蜂)
- ㅃ : 파(怒), 풀(蠅)
- ㅄ : 뫼(山), 마(薯蕷)
- ㅅ : 사비(蝦), 드비(瓠)
- ㅆ : 자(尺), 조히(紙)
- ㅈ : 체(籠), 채(鞭)
- ㅊ : 손(手), 섬(島)
- ㅋ : 부형(鶻鷁), 힘(筋)
- ㆁ : 비육(鷄雛), 뱀(蛇)
- ㄹ : 무뤼(靄), 어름(水)
- ㄷ : 아스(弟), 너시(犒)

당시 우리말의 실제 어음에는 전탁음( 𪗇다(引), 쏘다(射) : 《訓民正音· 合字解》)이 나 순경음(사비(蝦), 드비(瓠) : 《訓民正音· 用字例》)이 존재하였는데 《훈민정음· 제자해》 28개의 기본자에는 전탁음과 순경음이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과 집현전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음원리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글자꼴을 並書하거나 連書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전청 글자를 나란히 써서 전탁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전청소리가 엉겨서 전탁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단지 후음의 경우 ㅎ(차탁)이 ㅎ(전탁)에 비해 소리가 알기 때문에 차청이 엉겨서 전탁이 된다<sup>37)</sup>.

ㅇ을 순음 아래에 이어 쓰면 경순음자가 되는 것은 입술을 갑자기 다물어 목구멍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sup>38)</sup>.

그러므로 우리 말소리에 바탕을 두고 성음의 이치에 따라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을 상형하여 만들어진 《훈민정음· 제자해》 28자(자모 17자, 운모 11자)의 글자꼴은<sup>39)</sup> 모든 어음체계를 표기할 수 있는 最少의 기본적인 문자체계일 뿐 특정 언어체계를 분

37) 《訓民正音· 解例》: “全清並書則爲全濁, 以其全清之聲凝則爲全濁也. 唯喉音次清爲全濁者, 蓋以ㅇ聲深不爲之凝, ㅎ比ㅇ聲淺, 故凝而爲全濁也.”

38) 《訓民正音· 解例》: “ㅇ 連書唇音之下, 則爲唇輕音者, 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

39) 《訓民正音解例本· 制字解》: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이를 만들었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석하여 구성된 체계가 아닌 것이다.

또한 《洪武正韻譯訓·序文》에는 다음과 같이 편찬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세종께서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이 통하지 않아 반드시 통역관에  
게 의지해야만 하는 사실을 비추어 보시고, 무엇보다도 《洪武正韻》을 번역하라고 명령하  
시었다<sup>40)</sup>.

세종은 《洪武正韻》에 반영된 정음을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명과의 지속적인 교역  
을 통해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유교정치·문화의 기반을 이루고자 기대하였다. 그러나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을 착수한 이래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었  
다. 《洪武正韻》이 1375년(洪武 8年)에 간행되었지만 이에 구현된 정음체계는 중국의  
현실음계와 커다란 격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종은 ‘正俗異同之變’을 밝히  
기 위해 신숙주 등을 중국에 7·8차례 파견하여 燕都(北京)의 각계각층 사람들과 중국  
의 학자들을 만나 물어 보고, 또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올 때마다 정확한 음을 확인하  
는 등 거의 8년동안 원고를 10여 차례나 개정하여 《洪武正韻譯訓》은 端宗 3년(1455)  
에 와서야 간행되었다<sup>41)</sup>. 신숙주는 당시 중국음의 어음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36자모에서 설상음 4모와 순경음의 차청을 표시하는 1모는 세상에서 쓰이지 않은 지 이미  
오래이고 ..... 平上去入을 사성이라고 하지만 전탁자의 평성자는 차청음에 가깝게 되었고 전  
탁자의 상거입성자는 전청에 가깝게 세상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변한 까닭을 알지 못하  
겠다. 또한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서 한 글자의 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입성  
자에 있어서만 세속에서 중성을 쓰지 않으니 매우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이다.<sup>42)</sup>

40) 《洪武正韻譯訓·序文》：“於是吾東國世事中華，而語音不通，必賴傳譯，首命譯《洪武正韻》。”

41) 《洪武正韻譯訓·序》：“然語音既異 傳訛亦甚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于七八所與質之者若干人 燕都爲萬國會同之地 而其往返道途之遠 所嘗與周旋講明者 又爲不少以至殊方異域之使 釋老卒伍之微 莫不與之相接 以盡正俗異同之變 且天子之使 至國而儒者 則又取正焉 凡曆十餘稔 辛勤反復竟八載之久 而向之正罔缺者 似益無疑。”

42) 《洪武正韻譯訓·序文》：“三十六字母而舌上四母，脣輕次清一母，世之不用已久 ..... 四聲爲平上去入，而全濁之字平聲 近於次清，上去入 近於全清，世之所用如此，然亦不知其所以至此也。且有始有終，以成一字之音，理之必然，而獨於入聲，世俗率不用終聲，甚無謂也。”

《洪武正韻譯訓》의 체제는 《洪武正韻》과 똑같은 16권의 내용에 反切과 字解를 그대로 두고서 한글 표음만 첨가한 것인데, 《洪武正韻》에 구현된 正音 이외에도 당시 북방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음도 아울러 조사하여 이를 俗音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洪武正韻譯訓》에는 중국 실제 어음체계를 표기하기 위해 특징적으로 15C 중국 북방음에서 변별되었던 齒頭音과 正齒音, 脣重音과 脣輕音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음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자꼴이 필요하므로 발음원리에 따라 순경음은 連書하였고, 齒頭音과 正齒音은 발음부위의 차이에 따라 齒頭音은 앞 획을 길게하고 正齒音은 뒤의 획을 길게 하여 齒音의 기본 글자를 변형시켜 새로운 글자꼴을 만들었다. 중국어의 현실음계를 표기하기 위해 제작된 《洪武正韻譯訓》의 초성 31자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	全清	全濁
牙音	ㄱ: 균(鈞)	ㅋ: 킨(困)	ㆁ: 군(羣)	ㅇ: 인(銀)		
舌頭音	ㄷ: 뉘(端)	ㅌ: 툐(端)	ㄸ: 뉘(團)	ㄴ: 닌(紉)		
脣重音	ㅍ: 빈(賓)	ㅍ: 핀(繽)	ㅃ: 뵤(頻)	ㅁ: 민(民)		
脣輕音	ㅂ: 분(芬)		ㅃ: 뵤(浮)	ㅁ: 문(文)		
齒頭音	ㄷ: 진(津)	ㅌ: 친(親)	ㄸ: 쥌(秦)		ㅅ: 선(先)	ㅆ: 쑤(旬)
正齒音	ㅈ: 진(眞)	ㅊ: 친(頤)	ㅉ: 쥌(陳)		ㅅ: 산(刪)	ㅆ: 쥌(辰)
喉音	ㅇ: 인(因)	ㅎ: 훈(熏)	ㅎ: 훈(魂)	ㅇ: 운(雲)		
半舌音				ㄹ: 린(鄰)		
半齒音				ㄷ: 연(然)		

아울러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한 이래 시급하게 착수한 것은 전승된 조선한자음을 바로 잡는 일이었다. 유교국가로서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語文政策부터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禮와 樂, 樂과 聲音, 樂과 政敎가 밀접하고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동양의 전통음악사상의 영향일 것이다.<sup>43)</sup> 그리하여 성인의 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한자음이 正聲·正音에 부합

43) 《禮記·樂記》卷 37: “聲을 살피면 音을 알게 되고, 音을 살피면 樂을 알게 되고 樂을 살피면 政敎를 알게 되니, 이로써 政敎의 道理가 완비되는 것이다. (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而治道備矣).”, 《性理大典》에 수록된 朱熹의 《易學啓蒙》: “성음의 이치를 깨달은 뒤에라야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 (知聲音之理而後, 萬物之理得矣).”, 《東國正韻·序文》: “유추하건대,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성인의 도가 서적에 기록되지 못하였고 천지에 발붙이고 있었으나 문자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성인의 도가 여러 서적에 실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인의 도를 밝히려면 마땅히 문맥의 의미부터 공부해야 하고

되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은 먼저 한자의 표준음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운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자음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중국의 본토자음과 부합되어야 하는데, 발음하는 사이에 성모와 운모의 기틀이 저절로 우리의 어음에 끌리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한자음을 변하게 하는 까닭인 것이다. 비록 그 음이 변하였더라도 청탁이나 사성은 옛과 같을 수 있을 터이지만 일찌기 책을 지어 그 바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없었다<sup>44)</sup>.

그러나 신숙주가 “《洪武正韻》이야말로 실로 천하의 만국이 받들 기준이다.”<sup>45)</sup>라고 극구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일방적으로 明의 흠정운서인 《洪武正韻》에 구현된 正音체계만을 따르지 않았다. 《洪武正韻》에 반영된 정음체계는 《洪武正韻·凡例》에서 밝힌 正音에 대한 규정과도 배치되고 어음체계상 조선 한자음의 모범이 되기에는 어긋나는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설두·설상음과 순중·순경음과 치두·정치음같은 것은 우리 한자음에서는 구별할 수 없으니 마땅히 그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할 것이지, 어찌 36자모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겠는가<sup>46)</sup>.

그러므로 조선 한자음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정음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통속적 운서인 《古今韻會舉要》의 체계를 바탕으로 이미 전승된 조선 한자음의 정황을 참작하여 《東國正韻》<sup>47)</sup>을 편찬하였다. 《洪武正韻》의 ‘洪武’와 대비되는 《東國正韻》의 ‘東國’이라는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

문맥상의 의미의 요점을 알려면 마땅히 성음부터 공부해야 하니, 성음이란 바로 도를 연구하는 시초이다. (況乎書契未作, 聖人之道寓於天地. 書契既作, 聖人之道載諸方策. 欲究聖人之道, 當先文義. 欲知文義之要, 當自聲韻. 聲韻乃學道之權輿也.)”

44) 《東國正韻·序文》: “至於文字之音, 則宜若與華音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闕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 其音雖變, 清濁四聲則猶古也. 而曾無著書, 以傳其正.”

45) 《洪武正韻譯訓·序》: “《洪武正韻》實是天下萬國所宗.”

46) 《東國正韻·序文》: “字母之作諸於聲耳 如舌頭舌上唇重唇輕齒頭正齒之類 於我國字音 未可分辨 亦當因其自然 何必泥於三十六字乎.”

47) 23자모체계, 91운모, 平上去入 四聲體系로 된 구성된 《東國正韻》은 世宗 29년 9월에 6卷으로 편찬 완료되고 30년(1448년) 10월에 간행되었으며, 편찬자는 崔恒·朴彭年·申叔舟·成三問·姜希顔·李埏·李賢老·曹變安·金曾 등 9명이었다.

있듯이 이는 신흥 유교국가의 자주성의 표현이었으며, 당시의 이념체계를 지배하였던 유교적 언어관에서 볼 때, 《東國正韻》의 정음체계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유학을 연찬하여 터득한 조선한자음에 대한 정음관의 구현인 동시에 理想적 성격의 어음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구절을 보자.

우리나라 어음도 청탁이 구별됨은 중국과 다를바 없지만 우리나라 한자음에 있어서만 홀로 탁음이 없으니 어찌 이럴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청탁의 변화이다<sup>48)</sup>.

즉 청각적으로는 청음과 탁음이 변별되는데 조선의 한자음에는 청·탁음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올바른 한자음을 사용하여 성인의 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 글자꼴을 竝書하여 인위적으로 전탁음을 표기하였다. 다음은 이상적인 조선한자음체계를 위해 《東國正韻》에 쓰인 초성의 23字的 용례이다.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
牙音	ㄱ: 궁(瓶)	ㅋ: 쿵(肯)	ㆁ: 궁(統)	ㅇ: 응(凝)
舌音	ㄷ: 등(登)	ㅌ: 득(忒)	ㄸ: 똥(騰)	ㄴ: 능(能)
脣音	ㅂ: 붕(崩)	ㅍ: 풍(備)	ㅃ: 뽕(朋)	ㅁ: 멩(嘗)
齒音	ㅅ: 증(增)	ㅆ: 측(測)	ㅉ: 좡(曾)	
	ㅈ: 증(僧)		ㅊ: 쟁(繩)	
喉音	ㅇ: 목(億)	ㅎ: 흥(興)	ㆁ: 뽕(恆)	ㅇ: 응(蠅)
半舌音				ㄹ: 룡(稜)
半齒音				ㄷ: 싱(仍)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글이 각 언어체계의 특성에 따라 각각 완전한 문자체계를 구성하는 예를 고찰하여 보았다. 《훈민정음·용자해》, 《홍무정운역훈》, 《동국정운》은 모두 세종조에 편찬되었지만 편찬동기와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어음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즉 《훈민정음·용자해》에는 고유한 우리말체계가 표기되어 있고, 《홍무정운역훈》에는 15세기 중국 북방의 현실어음체계가 기재되어 있으며, 《동국정운》에는 정음사상에 따른 理想적인 한자음체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이한 어음체계에 따라 한글은 기본글자꼴을 連書 또는 竝書하거나 글자꼴을 변형시켜 각 어음체계

48) 《東國正韻·序文》: “我國語音, 其清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獨聲, 豈有此理, 此清濁之變也.”



에 합당한 글자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예를 통해 다음 두가지 한글음성문자의 활용 원칙을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말소리에 바탕을 두고 발음원리를 설명한다.

둘째, 새 글자꼴은 기본 글자꼴에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을 상형하여 만든다.

이와 같이 간단한 한글 음성문자의 원리는 무한한 활용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날 영어·불어·독어 등<sup>49)</sup> 외국어를 표음하는 데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다. 한글 음성문자의 원리를 현대중국어의 자음 22자에 적용시켜 표음하여 보자.

	脣音			舌尖音				舌根音			舌面音			舌尖後音				舌尖前音			
漢語拼音方案	b	p	m	f	d	t	n	l	g	k	h	j	q	x	zh	ch	sh	r	z	c	s
I.P.A	p	p'	m	f	t	t'	n	l	k	k'	x	tʃ	tʃ'	ç	tʃ	tʃ'	ʃ	ʒ	tʃ	tʃ'	s
K.P.A	ㅃ	ㅍ	ㅁ	ㅍ	ㄷ	ㄷ	ㄴ	ㄹ	ㄱ	ㅋ	ㅎ	ㅈ	ㅊ	ㅅ	ㄷ	ㅌ	ㅍ	ㄹ	ㄷ	ㅌ	ㅅ

중국어의 b[p]음을 낼 때, 입술을 긴장시켜 기류를 막아두었다가 갑자기 입술을 열어 기류를 내보내는 정도는 우리 말소리를 기준으로 ‘ㅃ’보다는 ‘ㅃ’에 가깝다. 그러므로舌尖音 d[t]나舌根音 g[k],舌尖前音 z[tʃ]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시켜 ‘ㄷ’, ‘ㄱ’, ‘ㅅ’로 표음하였다. 아울러舌尖前音(‘ㅅ’, ‘ㅌ’, ‘ㅅ’)은 앞 획을 길게 하고,舌尖後音(‘ㄷ’, ‘ㅌ’, ‘ㅅ’)은 뒤의 획을 길게 하여 그의 발음부위 및 발음방법을 상형하는 새로운 글자꼴을 만들었다. 그 외에 f[tʃ]나 r[ʒ]의 경우, 조선조에 脣輕音(ㅃ·ㅍ·ㅁ)과日母(ㄹ)의 표기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한글음성문자로 중국어를 표음할 경우 글자꼴로 중국어의 발음특징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음절마다 하나의 의미와 음을 갖추고 있는 중국어의 특징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sup>50)</sup>.

또한 1888년 국제음성학협회(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에서 국제음성문자(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를 제정한 이래 I.P.A는 명실공히 국제적 성격의 음성전사 문자체계로서 세계 모든 언어의 말소리를 표기하는데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개혁이 필요한 모든 언어에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음성문자는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서양의 라틴자모에 바탕을 두고 있어 각 나라마다 사용되는 라틴자모의 음

49) 이현복, <한글음성문자>, 112쪽 참조,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1989.)

50)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음절 하나에 의미와 음을 하나씩 갖추고 있는 것이다. 중국어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한자는 글자 하나에 의미와 음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나 한어병음방안의 경우 중국어의 이러한 특징을 살릴 수 없으므로 궁여지책으로 y와 w로 음절을 나누도록 하였으니 y와 w는 발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형식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大意 dàyi를 dài로 쓰면 代와 구별될 수 없게 된다.

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음가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j] · [q] · [x] · [z] · [c]와 [e] 등의 음가는 漢語拼音方案의 舌面音 j[tc] · q[tc'] · x [ç], 舌尖前音 z[ts] · c[ts']와 모음 e[ə]와 혼동하기 쉬우며, 외국인이 라틴자모로 표음한 한어병음방안을 배울 때도 자국에서 사용되는 라틴자모의 음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중국어의 발음 특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제음성문자(I.P.A)은 글자꼴마다 시각적으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글자꼴마다 음가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글은 이러한 여타의 국제음성문자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한글은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을 상형하여 새로운 글자꼴을 만드는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음성문자체계일 뿐만 아니라 기본 글자꼴을 중심으로 유사한 음끼리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상을 도와 정확하게 음을 낼 수 있고 또한 응용원리만 이해한다면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4. 맺는말

인도의 선진적인 언어기술방법이 중국에 전래된 후, 중국인들은 反切을 발명하여 표음이 불완전한 한자의 문자적 기능을 보완하였고, 발음방법과 발음부위를 명시한 韻圖를 통해 고도의 어음 분별력을 갖출 수 있었다. 宋代에 신유학이 성립하자 중국의 문인들은 이러한 고도의 어음변별력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음의 생성 원리를 담은 韻圖를 제작하여 자신이 상정하는 正音체계를 구현해내고자 하였다. 이는 올바른 음을 통해야만 성인의 도에 이를 수 있다는 규범적 의미 이외에 음을 통해 ‘天人合一’을 구현하고자 하는 전통적 사유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작자마다 방언의 차이가 있었고 古音을 추구하는 어음기준이 달랐으며, 무엇보다도 운도에 대입된 글자가 표음기능이 불완전한 ‘漢字’였기 때문에 어느 운도도 준거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오늘날 중국에서 正音觀은 한때의 사상계를 지배하였던 홀러간 옛 사상이 되어 버렸고, 아직까지도 표음문제에 있어 한자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1958년 ‘漢語拼音方案’을 확정하여 서양의 라틴자모를 빌어 한자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중국에서 생성 및 발전을 겪은 한자에 대한 사유전통 - 正音觀과 어음이론을 전수받아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을 상형한 표음문자인 한글을 창제하여 한자의 고질적인 표음기능을 해결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는 조선이 당시 유교

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하였던 문화 선진 국가였지만 《훈민정음·서문》에 분명히 밝혔듯이 ‘나랏말싸미 듕귎에 달아 문중와로 서르스뫓디 아니홀씨 ...’<sup>51)</sup>이라는 신흥 유교문화국가로서의 자주·독립성과 확고한 학문적 소신이 이론 결과였다.

그러므로 한글은 세계 어느 문자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문자체계가 아니라 수천년간 인류의 어음에 대한 사유와 고도의 어음기술이 집약된 문자관에 의해 연역적 방법으로 창제된 문자체계이므로 다른 문자와는 차별적인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본문에서 고찰하였듯이 세종조에 편찬되었던 《訓民正音》·《洪武正韻譯訓》·《東國正韻》는 제작 목적과 배경이 달라서 각각 상이한 어음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각 어음체계가 필요로하는 글자꼴을 한글은 27개(자음16개, 모음11개)의 기본 글자꼴에 발음부위 및 발음방법을 상형한 새로운 글자꼴을 제공하여 각각의 문자체계를 구성하였다. 유교적 이념하에 세상 모든 음의 생성원리에 의해 창제된 한글은 바로 세상의 모든 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한글음성문자의 원칙은 오늘날 이질어음체계의 외국어를 표음하는 데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西勢東漸의 시대에 동양의 이러한 사유 전통은 단절되고 모든 동양의 지혜가 집적된 문헌들은 서양식 사고와 편견에 의해 왜곡되면서 화석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한글의 우수성은 거꾸로 서양식 학문방법으로 교육받은 우수한 언어학자들에게 의해 재인식되고 있다.

이현복교수는 영국 런던대학에서 유학 당시 음성기호로서의 한글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한글음성문자>에서 “세종이 만들어 내신 한글에서 출발하고, 한글을 이용하여 상당히 자세한 소리까지 표시하고자 한글음성문자를 제작하였다”고 하면서 글자꼴의 유연성·응용력에서 국제음성문자(I.P.A)보다 월등히 과학적인 한글음성문자의 계발을 주장하였다<sup>52)</sup>. 또한 미국 Berkeley대학의 저명한 언어학자 William S-Y. Wang은 한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문자와 어음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문자는 한국의 諺文(한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은 한 획 한 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바로 한국어음의 phoneme(구별성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모음과 자음이 각각 체계를 이루고 있어 모음에서 어떻게 쓰면 전원음

51) 《訓民正音·序文》：“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矣.”

52) 이현복, <한글음성문자>, 112쪽,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1989.)

과 후원음이 되는 지. 자음에서 어떻게 쓰면 유성음과 무성음이 되는 지. 이러한 것들을 한글에서는 모두 표현해낼 수가 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한글이 어음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sup>53)</sup>.

그러므로 수 천년간 어음에 대한 인류 사유의 결정체이며 발음부위 및 발음방법을 상형한 기능적인 문자체계로서 한글음성문자체계의 배경과 효율성에 대해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申叔舟 等, 《東國正韻》, 서울: 대제각, 1975.  
 崔錫鼎 等, 《經世訓民正音圖說》, 서울: 대제각, 1975.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0.  
 김석득, 《우리말연구사》, 정음문화사, 1992.  
 유창균, 《국어학논고》,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이재돈, 《중국어 음운학》, 서광학술자료사, 1993.  
 이현복,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1989.  
 唐作藩, 《音韻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  
 심소희, <中古漢語의 重紐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_\_\_\_\_, <譯語類解小考>, 연세대: 『文鏡』 제4호, 1992.  
 \_\_\_\_\_, <顏之推의 언어관 연구>, 연세대: 『中國語文學論集』 제7호, 1995.  
 \_\_\_\_\_, <皇極經世·聲音唱和圖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饒宗頤, 《梵學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林燾·王理嘉, 《語音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1991.  
 周祖謀, 《問學集》, 北京: 中華書局, 1942.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5.

53) William S-Y. Wang(王士元), <語言和文字的生理基礎>, 《語言學論叢》 第11輯, 北京: 商務印書館, 130쪽.